

한성숙 국무총리, 폭염·가뭄 대처상황 점검

-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 당부 -

-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, 일부 지역에 가뭄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7월 31일(금) 폭염·가뭄 대처 상황을 점검하였다.
- 한 총리는 폭염·가뭄 피해 현황과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,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에 폭염·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- 행정안전부·보건복지부·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,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밀착 관리하고,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이동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다. 고용노동부에는 사업장 온도계가 실제 근무환경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온도계 설치 장소도 세심히 살펴볼 것도 당부하였다.
- 아울러,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고사와 가축·양식어류 폐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식품부·해수부 등에 용수 공급과 고수온 대응장비 가동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당부하였다. 또한, 농수산물 피해는 물가 상승으로 연계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처에 농산물 가격변동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하도록 지시하였다.
- 한 총리는 가뭄과 관련하여 기후부에 국지적 물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댐과 저수지, 하천의 연계 운영을 강화하고, 가뭄 취약 지역의 생활·공업용수 공급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.

-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장마 이후 폭염에 대응 중인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, 공무원들의 안전과 건강 관리도 함께 당부하였다.
- 더불어, 폭염 시 일부 지방정부의 소방사이렌 사용 등을 예시로 언급하며 현장에서 수용성 높은 방안들이 발굴·시행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모아 달라고 당부하였다.
-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폭염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, 국민들에게도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,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이웃의 건강도 살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안전환경에너지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김완수 (044-200-2346)
		담당자	사무관	윤성모 (044-200-2344)